

<4강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윗의 승리’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을 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강으로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다윗의 범죄와 재난’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혹시 해당 범위의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먼저 읽으신다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은 한참 신앙의 절정에 다다를 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신앙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했던 암몬과 싸우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국가라고 해봤자 규모가 워낙 작아 왕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압과 부하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싸우게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아도 싸움에 능한 요압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저녁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 왕궁 옥상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같이 동침 할 것을 제안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요셉과 같이 영적인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하여 피하지 않고 점점 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삼하 11:3-4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냈던 사람은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알아보라 명한 여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다윗은 여인을 대놓고 대려오라

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위험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 일로 끌어들인 사람만 몇 명인가요? 왕이란 지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불려온 밧세바! 여인은 부정한 기간에 있었습니다.

생리기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였기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제일 먼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무뎌지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만들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여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 있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세달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죄는 점점 무섭게 자라나게 됩니다. 한 번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에게 휴가 명령을 내립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밭을 씻으라’ 말합니다. 이는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고대의 표현입니다.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우리아에게서 낳은 아이라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계획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 왕보다 오히려 신하인 우리아가 신앙이 더 견고해보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데려다가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합니다.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틈을 타 집에 가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다윗은 점점 왕으로 해서는 안될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니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두어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음모를 눈감아 주고 그대로 우리아를 싸움터로 보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죄를 범한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찾아가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든지 죽게 하기에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합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왜 죽게 놔두냐면서 화를 내야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후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 일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빈들에서 양떼를 돌보았던 때, 가진 것이 돌멩이 몇개 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다윗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볼드느냐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삼하 12: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회개하는지 지켜보시다가 안되겠다 싶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기의 가축들이 아까워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마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하죠.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죄'를 뜻하고, '부자'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왕인 다윗에게 죄라는 손님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라는 손님을 쫓아내지 않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삼하 12:5-6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런 일을 행한자는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네 배나 갚아야 한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기초한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인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를 율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 한마디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삼하 12:7 전반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은 계속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이 뭐라고 지적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말합니다.

업신여기다는 말을 원어로 풀이해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뱃세바와 간음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만방에 폭로하셨습니다.

삼하 12:12-13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울은 용서 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용서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언약'의 차이입니다. 둘째는 죄를 지은 후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죄에 대해 계속 변명했습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은 다윗!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죄에 대해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를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수천 번, 수만 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죄는 용서 받되 그 값은 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지만, 끝내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샬롬이라 지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샬롬만큼 큰 복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이 저지를 죄로 인하여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는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샬롬이라 지은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암몬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 속에서 계속 암몬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모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마지막 한 곳만 남겨 놓고 다윗에게 와서 마지막 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은 참으로 정치적인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마지막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씁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것 밖에 없는데 마지막에는 영광의 관을 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있죠. 이는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3:1-2

- 1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암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 2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딸이라 표현해도 되는데 암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 표현합니다. 다말은 암살롬과 한 배에서 태어난 친 남매인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힌트를 줍니다. 반면 암논은 암살롬과는 배 다른 형제로 현재

장자로 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것이죠. 그런데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상사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주들은 왕의 명령이 없이는 함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암몬이 다말을 사랑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암몬에게 찾아와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병이 병이 든 척하다가 다윗이 오거든 '다말이 와서 떡을 먹이게 하여 달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조언대로 암몬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순순히 암논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게 되면 남의 말에 속게 됩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이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은 육정을 참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한 것에서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논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을 아들이 그래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지울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말은 친오빠 암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말은 폐인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암논의 죄로 인하여 한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자녀들을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계속 물으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나의 삶에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죄를 깨달았다면 그 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다음 강의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5강으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만나교회 홈페이지 강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강의 자료실에서 글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